

기호일보

2016년 11월 17일 (목)  
14면 인물

## 남과 북 다시 손잡는 '그날' 화폭에 그려냈어요

도, 초중고 DMZ 미술대회 시상식  
금촌중 인서연 학생 통일부장관상

경기도는 16일 비무장지대(DMZ)의 가치를 미술을 통해 되새겨 보는 '2016 DMZ 미술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이번 미술대회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활동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양복완 도 행정2부지사, 성기혁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수상자와 학부모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 학생들은 '평화통일'과 'DMZ의 자연'을 주제로 작품을 완성했고, 최종 23명의 학생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상식에서는 DMZ와 평화통일을 풍부한 미술적 감성과 뛰어난 발상으로 형상화했다는 평가를 받은 인서연(금촌중 3년)학생이 대상(통일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경기도지사상은 독창적 표현으로 호평을 받은 조혜령(전곡고 1년)학생, 주제의식과 스토



리를 잘 담아낸 이서현(풍동중 3년)학생, 풍부한 상상력을 보여 준 김예림(금화초 5년)학생이 수상했다.

이 밖에도 연천군수상, 경기관광공사 사장상 등 총 23명의 학생이 상장을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인서연 학생은 "평소 분단과 통일에 대해 생각했던 바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며 "이 그림처럼 분단된 남과 북이 다시 손

을 잡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입상작은 오는 22일까지 도청 북부청사 1층 로비에서 전시되며, 수상 명단은 도 DMZ 홈페이지(<http://dmz.gg.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19.9 X 13.7 cm

## 경인일보

2016년 11월 17일 (목)  
02면 종합

### ‘DMZ 미술대회’ 수상작 22일까지 道북부청 전시

‘2016 DMZ 미술대회’ 수상작들이 16일부터 일주일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전시된다.

DMZ 미술대회는 지난달 29일 연천 임진물새롬랜드 일원에서 ‘평화통일과 비무장지대(DMZ)의 자연’을 주제로 열렸다.

경기지역 초·중·고생 30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통일부장관상)을 받은 인서연(파주 금촌중 3년)양을 비롯해 23명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경기도 DMZ 홈페이지(<http://dmz.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인 성기혁 경북대 예술학부장은 “DMZ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와 자연을 독창적인 표현기법으로 그려낸 작품이 많았다”며 “우수한 작품이 많아 심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제표현을 우선했다”고 말했다.

의정부/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mailto:cjh@kyeongin.com)

4.9 X 13.8 cm